

분류	주일강단 1부
제목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
성경	롬9:1-13
일시	2024년 4월 21일
장소	성암교회
강사	정영신 목사 (정리: 김홍구 목사)
주제어	

♣성경말씀(로마서 9:1-13)

롬9: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롬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9: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롬9: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롬9: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롬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롬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롬9: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롬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롬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롬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롬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 독취 자료 ♣

서론)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로마서는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큰 고통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왜 고통이 왔으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큰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 오늘 바울은 여기에 대해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다.

1. 성경적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흑암세력이 공격한다.

확신을 어디서 갖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 성경을 넘어서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확신이 없으면 흑암에게 당하게 되는 것이다.

1)구원의 확신(요일5:11-13)

사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공격하는 것이다.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이다.

2)기도응답의 확신(요14:14)

누구든지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기도

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직접 응답하시겠다는 것이다.

3)승리의 확신(고전10:13)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는 답을 주신다고 했다.

4)사죄의 확신(막10:45)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고 했다.

5)인도의 확신(마28:20)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생각대로 간다. 틀린대로 신념을 가지고 따라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 이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확신이 없으면 공격 당하는 것이다. 사탄이 공격하는 루트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을 놓치는 것이다.

2. 신학적 확신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칼빈 주의가 되어야 한다.

1)알미니아니즘

신인합의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셨으니까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덕, 열심, 노력으로 구원에 1%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들은 구원이 취소된다고까지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을 하며 산다면 나중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2)칼빈니즘

롬8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다. 다른 것이 없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고 말씀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3)귀신론

사실 귀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악령과 악한 영들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다. 원문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다. 언제나 똑같아야 하는 것이다.

3. 사실적 확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은 건드리는 것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염려가 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내게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다.

본론)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1.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의 약속을 봐야 한다. 성경의 약속이 믿어진 자는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1)창1:2, 흑암, 혼돈, 공허 → 창1:3, 생명의 빛(그리스도)

빛이 비추어진 것이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이 비추어진 것이다.

2)창3:5 → 창3:15, 여자의 후손

원죄 가운데 여자의 후손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된 것이다.

3)롬3:10, 롬3:23→ 롬5:8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4)롬10:9-10,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5)요1:12, 계3:20,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6)고전3:16, 성령이 너희 안에

이 믿음을 가진 자인줄 믿는다.

7)요5: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이미 끝난 것이다. 그 다음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취소된다는 말은 없는 것이다. 끝난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은 없는 것이다. 말씀대로 믿기를 바란다.

8)행1:8, 능력이 나타난다.

오직 성령충만받고 권능 받아 증인이 되리라.

2.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유를 아는 자(롬8:31-39)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다. 극한 핍박 속에서 알미니안 이라면 흔들린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한계가 온다. 그럼 무너지는 것이다.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백성과 자녀가 구분은 없는 것이다.

1)엡1:3, 창세전에 너를 부르셨다고 한다. 롬16:25에는 영세 전에 너를 준비했다고 한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2)롬9:9, 아브라함 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고 사拉到게서 난 아들이어야만 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 그랬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다니고 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받고 잘 믿고 잘 다녀야 하는 것이다. 다급한 상황에서 알미니아니즘이라면 되겠는가?

3)즉,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축복이라는 말이다.

구원은 절대적 축복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3. 중요한 미래의 것을 알게 됨

1)6절에 참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의 말로는 다르다고 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멸망 받았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 흔들릴 이유가 없다.

멸망 안 당할 방법을 제시했는데 거부했다. 오실 메시아를 제시했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다.

2)참 아브라함의 씨와 육신의 씨는 다르다. 이것이 7절의 내용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다.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고 확실하게 알았던지 차라리 내가 죽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망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이 고백하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다. 악한 불신자가 아무리 괴롭혀도 망할 사람은 뻔한데 두려운가?

3)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다르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

결론) 실제적 기도를 하라(세 가지)

1)예수 영접(요1:12, 계3:20)

예수님을 늘 영접하기를 바란다. 무슨 말인가? 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다.

2)성령 영접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충만이다.

3)말씀 영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영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잘박힌 못과 같이 박혀야 하는 것이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은 나를 살리고 치유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칼이 들어와도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시작해 보라. 어째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약한데 멸망하지 않고 정복을 했는가? 아무 힘도 없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정복을 했는가? 복음가진 소수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내 시간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다. 막는 것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다. 기도하기를 바란다.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